

손절 뜻

주식거래시 자신이 매수하였던 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를 1,000원에 매수하였고 가격이 떨어져 800원이 되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800원에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만한 내용이지만 손절의 중요성은 전혀 가볍지 않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손절은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절할 수 있겠는가 ?

손절은 말처럼 쉽지 않다. 주식투자자의 심리라는게 손해를 보고 손절한다는 상황자체를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의 미래를 100%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주식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심리가 겹쳐 손절을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계속보유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오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이다.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경계 = 손절의 용기

그렇다면 손절을 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손절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생기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투자방법이 정립해있어야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희일비해서는 언젠가 큰 손실을 맞을 수 밖에 없다. 9번 수익을 내도 1번 손해를보면 무너지기 쉬운 주식판에서는 최대한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절 뜻

주식거래시 자신이 매수하였던 가격보다 높아진 가격에 매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를 1,000원에 매수하였고 가격이 높아져 1200원이 되었다면 200원의 차익을 보았으며 이것이 익절이다..

이득을 보았다는 부분에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었던 결코 실패한 투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하지만 익절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겠다. 설명을 듣기전에 아래 포스팅을 읽고 오기를 바란다. 상승에 따른 주식투자자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글이니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식/주식차트분석] - 엘리엇 파동 매매기법 - 투자심리분석

높아져만 가는 주가, 언제 팔아야 할까?

자신만의 원칙이 없다면 만족할만한 가격에 절대 매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수익을 내기만 했다면 축하한다. 만약 상승심리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여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을때는 허탈감과 허무감에 정신적충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